

광주시교육청, '2020 광주교육 온라인 포럼'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7~29일 사흘 동안 '코로나 시대, 광주교육 희망을 품다'를 주제로 '2020 광주교육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 광주교육 온라인 포럼'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했다.

이번 포럼은 ▲1차 포럼(27일) ▲2차 포럼(28일) ▲I.D.E.A. 포럼(29일) 등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코로나 시대, 광주교육 희망 품다' 주제 27~29일 사흘 동안 진행

기후 위기·스마트 교육 등 현안 바탕으로 다양한 공론의 장 마련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차 포럼(27일)에서는 전남대 이두휴 교수가 '코로나 시대 광주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AI 대학원 김종원 원장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교육 구상'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진 후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2차 포럼(28일)에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시대, 광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조길에 대표가 '기후위기에 관한 진실, 그리고 학교가 실천해야 할 기후행동'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우리 교육의 실천 과제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진 후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와 함께 진행되는 I.D.E.A. 포럼(29일)은 '교육 빅데이터의 활용과 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화여대 조일현 교수가 '빅데이터가 학교교육에 주는 의미와 가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빅데이터분석부 이종현 책임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문제 해결 방안과 한

계, 건양대 융합 IT학과 김두연 교수가 '교육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들이 경험한 위기가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광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학교,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강사·48개국 GKS 정부초청장학생과 함께하는 화상 프로그램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위상 제고 및 지역 초·중등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와 전 세계 48개국 정부 초청 대학원 장학생과의 화상 버디 프로그램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가 운영하는 '영어회화 화상수업(1:3)'과 GKS 장학생과 함께하는 '화상 버디 프로그램(1:1)'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천시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 50여 명(화상영어 30명, 버디 프로그램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GKS)은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모집·선발하여 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 중인 국제장학사업 프로그램에 선발됐다.

순천대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수확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로, 초·중등 참가자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대학교 천지연 국제교류교육원장은 "우리 국제교류교육원은 그동안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

응한 다양한 양질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추진 중이다."며, "이번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이러한 비대면 교육의 일환으로 풍부한 콘텐츠와 교육과정으로 꾸러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주 3회씩 10주간 무료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소외계층자녀를 우선 선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홈페이지(<http://ials.sc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교육장-목포학부모회, 네트워크 공감·소통 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대표 50여명 대상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20일 예술웨딩컨벤션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대표 5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회 대표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학부모회 학교교육참여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한 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학부모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운영

했다.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은 인사말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목포교육 안내와 학부모회 대표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목포학부모 네트워크 주도로 이루어진 소통의 시간에서는 목포교육장, 전라남도 도의회 이혁제 교육위원과 함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대표자들은 ▲목포만의 특화된 교육 ▲방과 후 수업 ▲학생 생활지도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대책을 제안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순천 신대도서관 '바람이 분다, 책바람' 서평집 발간

독서에 열정적인 8명 서평단원 참여

순천 신대도서관은 대표 독서동아리 '책바람 서평단'의 서평을 모은 첫 번째 서평집 '바람이 분다, 책바람'을 발간했다.

'책바람 서평단(이하 서평단)'은 2017년 7월 결성되어 매주 금요일마다 책 이야기를 하는 책모임으로 읽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평을 써서 서로의 글과 생각에 대해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휴관 속에서도 서평단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로 지속적인 독서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번 서평집은 31권의 책에 대한 서평 45편으로 구성된 230쪽 분량으로, 독서에 열정적인 8명의 서평단원(김현정, 김형선, 나난희, 오영주, 이해란, 조나희, 조영선, 현부연)이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새엄마 찬양〉, 〈멋진 신세계〉, 〈스토너〉 등 같은 책에 대한 서평도 실어져 있고, 각기 다른 책에 대한 서평을 더 많이 실어 독자가 다양한 책에 다가갈 수 있게끔 구성했다.

서평집은 각 서평단원의 서평이 각 장으로 이뤄져, 각 장의 첫 글에 서평



단원이 직접 쓴 자기 소개글이 실려있다. 독서를 대하는 서평단원의 마음이 느껴져, 자기 소개글을 읽고 서평을 읽으면 서평을 쓴 사람이 직접 읽어주는 것 같은 친근함까지 들곤 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진도교육청 "작은학교가 희망이다"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20일, 진도 솔비지에서 관내 학교장과 함께 '2020. 작은학교 활성화 화로 학교혁신을 주도하는 학교장'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가졌다.

초등의 작은학교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나주지역 양산초등학교 김옥경 교장선생님을 감사로 하여 적극적인 학교 홍보, 교사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학생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감하였

며, 중등의 작은 학교가 희망인 전남교육을 위하여 순천지역 별량중학교 이계준 교장선생님을 감사로 하여 학교를 살리는 힘은 공감과 지지, 코로나가 가져다 준 학교의 본질 다시 보기, 자치로 살아나는 학교 등 학교의 건강한 생태계를 꿈꾸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작은학교 활성화 협의회 시간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특색교육 활동을 벤치 마



킹하고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에 따른 학생 확보 등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진도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의 대안을 찾기도 하였다.

진도=조성용 기자

